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중핵 도시 충남·대전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삼남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과, 서해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 요충지로 부각됨으로써 많은 기업체가 이동하고 있는 충남지역은 향후 한국을 이끌어갈 중핵도시로써 오늘의 충남·대전 중흥을 위한 대장정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

1. 충남·대전의 산업구조

21세기 선도도시로써 첨단과학 기술도시, 지식정보산업도시, 물류 유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 컨벤션산업과 도시 근교 농업의 진흥을 통한 선진국수준의 경제과학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전과 서해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정보첨밀기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 II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기업집적 입지기반을 충청남도에서 마련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2003년 3월 현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활발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자동차,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 일부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 음향 및 통신,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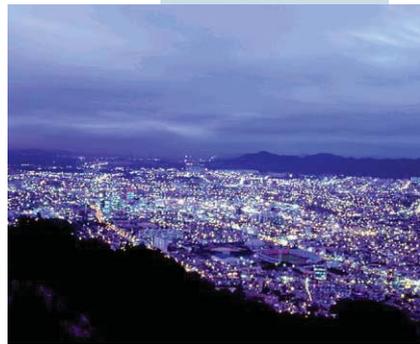
대전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0.02% 14개 업체와 2차산업이 10%인 9,069개 사업장에 69,42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반면 90%가 3차산업으로도·소매업이 33.5%(27,269개 업체), 숙박·음식점업이 22.4%(18,215개 업체)로 가장 많은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과 대전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제1단지에서 4단지외 대덕테크노밸리 등 5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대전에는 2001년 9월 현재 307개 업체의 12,44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충청남도에는 21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대전, 충청남도 지역의 2002년 재해율은 0.81로 평균 재해율보다 다소 높지만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천안지역은 0.67로 충청남도 지역내에서 가장 낮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충청남도에서는 지방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용으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최근 대죽, 산업기술, 관창, 월산 산업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대전자원, 탕정TX, 영상문화, 서산, 논산, 인주1 등 6개 산업단지를 지속추진하고있다.

2.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기업을 찾아서



내일의 기술을 여는 기업 다이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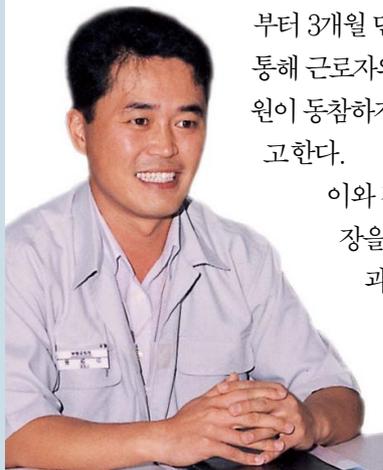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있는다이모스(이중우대표이사)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급속한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기술개발을통해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이며 경쟁력 있는 트랜스미션과액슬을 생산하는기업으로 7년동안 노사분규가없는 성숙된기업경영과노사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기업이다.이처럼 성숙된기업을이끌어가고 있는다이모스서산공장의안전활동을이재운과장으로부터 들어본다.

다이모스의 안전을 담당하는 이재운과장은 근로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는데 큰 견인차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짧막하게 그 이유를 말한다.

다이모스 서산공장은 상용차 생산공정이 주공정으로 중량물 취급에 의한 위험과 고소 작업에 따른 추락재해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에 서산공장에서는 고소 작업용 안전 작업대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중량물 취급 견인차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요통재해 예방에 혼열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50여대의 크레인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상반기에 1개월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워워킹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보기를 지급하고, 견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만보기 지급 당시 부터 3개월 단위로 초기 건강검진, 중간 건강검진, 최종 건강검진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인데 모든 직원이 동참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설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서부터 무재해 사업장을 꿈꾸고 있는 다이모스 서산공장은 하반기에 ISO 14001 과 OSHAS 18001 인증 획득을 계획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다.



▲ 다이모스 이재운 과장

안전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기업

'90년에 (주)오성주택으로 시작한 서림종합건설 (주)김경호 사장은 열과 성을 다해 안전시공, 양심

시공을약속하고있는서산지역 건설회사이다.2군으로 규모는작지만 안전의 체계화를 위해 처음부터 안전을다시 시작하는보기드문기업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도급 순위 15위, 서산 지역 도급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림종합건설(주)는 현재 전국 8개 현장에서 무재해를 이끌어가고있다.

서림종합건설(주)가 안전을 중요시한 데에 뼈아픈 과거 즉, 단 한건의 산재가 작년 수주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단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한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김경호 사장은 서림종합건설(주)의 안전을 전담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그 해결책을 찾았고, 오늘 찾은 장영필 대리가 그 주인공이다.

김경호 사장의 강력한 안전의지로 기존의 시공 위주의 경영에서 안전위주의 경영으로 바뀐 서림종합건설(주)는 장영필 대리로서 하여금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의 안전 체계화를 꾀하고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은 체계화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영필 대리는 중소건설업체에서 수행할수있는 안전의 체계화를 만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또한 근로자 의식을 중요시한다. 의식이 있는 근로자는 상황을 이해하고 작업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반해 의식없이 무조건적인 지시 이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영필 대리의 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장영필 대리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무재해를 이룩할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월말 전현장을 대상으로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특히, 현장에서의 안전활동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벌금제도이다. 대기업 현장에서나 실시되는 제도가 서림종합건설(주) 전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와 계약시부터 이 부분을 문서화하여 안전을 준수하지 못한 근로자나 담당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김경호 사장의 지원으로 전현장에 정착되어 가고있다고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 서림종합건설(주)이 많이 변했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하루하루, 하나하나 체계화하고 있는 이곳은 오늘도 금년도 무재해 달성을 향해 힘차게 매진하고있다.

3. 재난방지 시스템

충남지역에서는 소방활동 활성화를 통해서도 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설정



▲ 서림종합건설(주)장영필 대리

지역 안전기행



하고 추진하고 있다.

총 17개 항목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방력 보강으로 노후된 소방청사 증·개축 및 소방차량·인명구조장비 중점보강
-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시스템으로 재구축
- ▲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민방위시설·장비의 지속적인 보강과 기존 장비 유지관리 철저
- ▲ 다양한 소방환경에 대응하는 소방공무원 정예대원 육성
- ▲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로 대형화재 사전방지
- ▲ 엄격한 법 적용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위험물 시설 안전대책 추진
- ▲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로 재난 사전예방
- ▲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의 희망을 주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참여와 홍보활동 전개로 “사랑의 생명나눔” 실천운동 전개
- ▲ 생활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 제공
- ▲ 도민을 내가족처럼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친절한 소방행정 수행
- ▲ 각종 소방활동 현장여건개선 및 출동태세 확립
- ▲ 소방정보통신 기반 확충
- ▲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맞는 안보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운영
- ▲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정보망 운영
- ▲ 도단위 안전관련 신고망을 통합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한 안전 서비스 제공
- ▲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능력 배양

이 밖에 충청 소방학교에서는 하계 수련캠프에서 씨랜드 화재 참사 및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의 안전수칙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방학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다. 

〈최종덕기자〉